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55.8조 내년 예산안 부처별 심사 스타트

輿野 쟁점항목 ‘한국판 뉴딜’  
민주당 21.3조 ‘사수할 것’ 예고  
국민의힘 ‘대폭삭감’ 공방 예상

국회가 9일부터 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은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사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대폭 삭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과 관련 “10조원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체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기존 사업 재탕 ▲예산 낭비성 신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 실적 저조 사업 ▲정권홍보·근거 법률 미비 사업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1조원) ▲금융위원회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뉴딜펀드(6000억원)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1294억원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 등을 예시로 들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판만 바꾼 한국판 뉴딜에 재정을 쏟는 건 적합지 않다”며 “대폭 감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 행기기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 마트스쿨 등 혁신적인 신규 사업으로 다음 세대의 머리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투자 전략”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발목잡기이자 근거 없는 정략적인 비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9일부터 시작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46.7%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후 11~12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한 뒤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도로교통공단, 18일까지 상임이사 공모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8일까지 상임이사(안전본부장)를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상임이사 채용인원은 1명이며, 공단의 비전인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를 함께 실현해 나갈 덕망과 역량을 겸비한 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초빙 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지원서, 학력증명서,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11월 18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양식과 모집직위별 자격 요

도로교통공단 전경.  
건 등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美, 더 큰 경제협력으로 나아갈 것”

文 대통령, 美 바이든 당선 축하  
“향후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탄소중립 등 협력여지 매우 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더 큰 경제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죽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관련 문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두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코로나가 확산하기 좋은 조건인데다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생활 방역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 김대중 前 대통령-바이든, 편지 2점 공개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대중이 주고받은 편지 2점을 9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료는 1983년 9월 30일 바이든 당선인(당시 상원의원)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1984년 2월 27일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82~1985년 미국 망명 기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민주화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한 자신의 연설문과 기고문을 동봉한 편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바이든 당선인이 보낸 편지는 앞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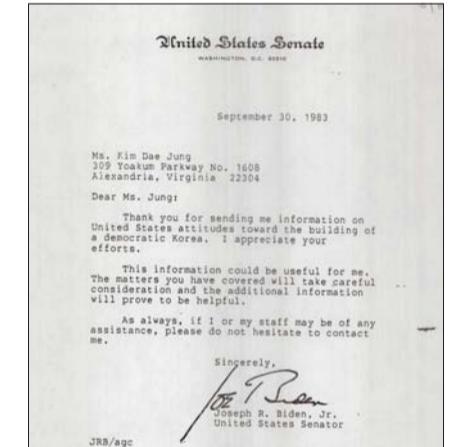
한 답신이다.

이 편지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당신이 보내준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며 “당신이 다루는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한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이때부터 바이든 당선인과 김 전 대통령은 친분을 쌓아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84년 바이든 당선인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같은 해 2월 25일 전두환 정권의 정치 인사 202명에 대한 해금 조치는 기만적인 조치라고 비판하고 이런 ‘긴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



미국 47대 대통령 바이든이 1980년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연세대

를 제안했다.

김대중도서관은 “이번 사료는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관계가 시작된 1980년대 초중반 시기 두 사람과 관련된 사료의 최초 공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hji@

## 中 최대 온라인몰 ‘티몰’에 ‘韓식품관’ 신설

농식품부, 중소업체 중국진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T-Mall)’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농식품 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몰은 중국내 1위 B2C 플랫폼으로 8억 명 이상 활성 사용자가 있고, 지난해 연매출은 544조 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지난 5년간 31%의 높은 성장세에 있는 중국 시장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



중국 온라인 플랫폼 티몰에 한국식품 국가관 개설. /농식품부

함으로써 중소 수출 업체들이 모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중국 ‘aT 칭다오물류센터’에 소포장 배송시스템을 구축했고,

티몰이 지정한 전문운영대행사를 통해 주문부터 결제·배송·재고관리·고객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